

‘기’의 발끝, 英 그라운드 들었다 났다

“홍명보, 다른 조언 불필요”

2002 4강 신화 주역들 한자리...히딩크 감독 덕담



“아싸~ 골이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의 기성용(오른쪽)이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크레이브 코티지에서 열린 풀럼과의 원정경기에서 골을 성공시킨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기성용 1골 1도움 활약...선덜랜드, 풀럼 4-1 승

“킬 패스, 역습의 교과서” 英 언론 극찬...‘평점 8’

결승골에 어시스트까지 더한 기성용(25·선덜랜드)에게 현지 언론의 호평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했다. 기성용은 12일 영국 런던의 크레이브 코티지에서 열린 풀럼과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원정경기에서 선덜랜드의 4-1 승리를 이끌었다. 정확한 킥을 토대로 한 위력적인 슈팅력과 볼 소유 자체로 상대를 긴장시키는 정밀한 패스 능력이 경기 내내 기성용을 부각시켰다. 기성용은 전반 41분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풀럼의 골문을 갈았다. 그가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고 나서 필드골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지난달 28일 에버턴과의 원정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 지난 시즌 스완지시티, 올 시즌 선덜랜드 시절을 통틀어 프리미어리그 첫 골을 넣었다. 지난달 18일 캐피탈원컵 8강전에서 첼시를 상대로 터트린 결승골을 포함 시즌 3호골이다. 기성용의 활약 속에 선덜랜드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 최다 득점이자 최다 점수차 승리를 거뒀다. 아울러 귀중한 승점 3을 획득, 승점 17이 되면서 19위로 한 계단 올랐다. 기성용은 팀이 1-0으로 앞서던 전반 41분 오른쪽 측면 프리킥 상황에서 존슨이 골 지역 오른쪽에서 짧게 내준 볼을 받아 강한 오른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쏘았다. 2-1로 앞선 후반 24분에는 페널티지역 오른쪽 측면으로 침투하던 존슨에게 중원에서 스루패스를 쫓아 헤딩골을 어

시스트했다.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스포츠’는 양 팀 선수를 통틀어 존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평점 8을 기성용에게 부여했다. 이날 헤트트릭을 작성한 존슨이 평점 9를 받고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됐다. 스카이스포츠는 “기성용이 첫 필드골을 터뜨린 데 이어 후반에 존슨에게 정확한 패스를 전달해 역습의 모범 사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기성용의 발끝에서 시작된 선덜랜드의 세 번째 골은 이날 경기의 골 오브 더 매치로 뽑혔다. 스카이스포츠는 “역습 교과서에서 나올 골”이라며 “기성용이 반대편에서 쇄도하는 존슨에게 자로 깎 것처럼 공을 전달했다”고 호평했다. 축구 전문매체인 골닷컴의 영국판도 기성용에게 존슨 다음으로 후한 평점을 부여했다. 골닷컴 영국판은 기성용에게 4점(만점 5)을 주며 “감독이 기성용에게 원하는 플레이가 바로 이런 것이다. 풀럼을 속이고 지능적으로 골을 터뜨렸을 뿐만 아니라 맛깔스러운 패스로 존슨의 골을 돕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또 기성용은 이날 멀티골 기회를 얻었으나 헤트트릭을 앞둔 동료들 위해 이를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덜랜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기성용이 페널티킥 키퍼로 지정됐으나 3-1에서 얻은 페널티킥 기회를 존슨에게 내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2일 아메리카컵 7차 대회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건 남자 4인승 대표팀의 원운종, 석영진, 전정진, 서영우(왼쪽부터).

‘쾌속 질주’ 봅슬레이

남 4인승 사상 첫 국제대회 ‘금’...소치 출전권 획득

한국 봅슬레이가 남녀 2인승에서의 맹활약에 이어 남자 4인승에서도 사상 첫 국제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고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파울트 원운종(경기연맹)과 푸시맨 석영진·전정진, 브레이크맨 서영우(경기연맹)로 구성된 남자 4인승 대표 A팀은 12일 미국 레이크플래시드에서 열린 아메리카컵 7차 대회에서 1·2차 레이스 합계 1분53초52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대표팀은 2차 레이스에서 57초39로 4위에 그쳤지만, 1차 레이스에서 56초13으로 1위에 올라 미국(1분53초70)과 일본(1분53초81)을 제쳤다. 한국 봅슬레이가 4인승에서 국제대회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3월 원운종이 조종간을 잡고 아메리카컵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건 이래 1년간 한국 대표팀은 아메리카컵에서 6개의 금메달을 수확했지만 모두 2인승에서 나왔다. /연합뉴스

원운종은 4인승에서도 사상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아메리카컵 2인승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원운종은 남은 8차 대회 결과에 따라 4인승에서도 종합 우승을 노릴 수 있다. 김동현에게 조종간을 맡기고 김시·김경현(푸시맨), 오지환(브레이크맨)으로 팀을 꾸린 B팀도 이날 합계 1분54초95의 기록으로 8위에 올랐다. 이날 경기에서 1, 8위를 차지하면서 한국 봅슬레이는 4인승에서도 소치올림픽 출전을 사실상 결정지었다.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FIBT)은 이날 20일 국가별 올림픽 출전권을 공식 발표한다. 원운종의 A팀이 20위권까지 바라보는 높은 랭킹에 올라 있어 이번이 없는 한 올림픽 무대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봅슬레이에서는 남자 4인승과 2인승, 여자 2인승 등 모든 종목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티켓을 얻었다. /연합뉴스

맞춤 웨딩의 명소 신양파크호텔

2014년 신년 감사 웨딩 할인 축제
기간 | 2014년 2월~3월(2개월)

감사할인 특별메뉴 (200명 이상)
뷔페 ₩30,000원~
스테이크 ₩35,000원~ (세금별도)

기타혜택: 객실 2실 무료제공, 꽃길 무료제공, 폐백실 무료제공, 열음조각 무료제공, 음주류 50% 할인, 웨딩캐드 50% 할인

Shin Yang Park Hotel 예약문의 062)221-4101~3